

‘칩덩굴의 습격’ 전남 숲 가꾸기 난항

2012년 조사 3만여ha 분포

매년 50억원 들여 제거작업

왕성한 번식력·빠른 생장

인력 제거 방식 효과 미미

‘숲 속의 전남’ 조성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도가 칩덩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칩 제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칩 속의 전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여수4)에 따르면 2012년 조사 결과 전남

의 칩덩굴 분포 면적은 3만2546ha였다.

도로변에 1만1903ha, 산림내 1만8062ha, 관광지 2546ha가 칩덩굴에 덮였다. 평수로는 1억평, 여의도 면적의 112배나 된다. 2015년 전남 전체 산림 면적 69만237ha였던 점을 고려하면 5% 가까운 산림에 칩이 분포하는 셈이다.

칩덩굴이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햇빛을 받는 데 방해가 받아 생장에 지장을 받는다. 가로수 등을 휘감은 칩덩굴은 미관도 해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5년 48억9005만원을 들여 4470ha, 지난해 49억1000만원을 들여 4266ha 칩덩굴을 제거했다. 올해에도 51억

원을 투입해 4015ha를 제거할 예정이다.

하지만 칩은 왕성한 번식력과 빠른 생장, 제거후 재발생 등으로 완전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렁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 금오도의 경우도 칩덩굴이 비렁길 주변을 뒤덮고 나무에 기어올라 수목이 죽이는 등 전남도내 대부분 섬의 산림이 칩덩굴에 무방비 상태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칩덩굴 제거 5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작업단 225명을 동원해 제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사업량을 2배(4000ha→8000ha)로 늘려 체계적이고 반복적

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력 제거 방식은 친환경적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연창 의원은 “칩을 제거하지 않고 나무만 심는 것은 잡초밭에 채소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며 “칩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 나무를 심는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장 칩 분포 등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제거 방식도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 효과와 환경 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인 군산시 장미동 ‘옛 군산세관’이 지난 6일 관세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군산시청 제공)

옛 군산세관, 관세 박물관으로 변신

1450점 세관 사료 전시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옛 군산세관(228㎡)이 관세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군산세관은 김영문 관세청장, 이범주 군산세관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호남 관세박물관 개관식을 했다

이 박물관은 세관역사, 체험, 사료, 기록 등 8개 테마로 나뉘 총 1450점의 세관 유물과 사료를 전시한다.

대한제국 때인 1908년 벨기에산 붉은 벽돌과 건축자재로 건립된 옛 군산세관은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점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로 꼽히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세관건물이다.

서양식의 단층건물 외벽은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로 쌓고, 내부는 나무와 회벽을 이용해 유럽양식으로 장식했다.

지붕과 창문은 각각 고딕과 로마네스

크 양식이며 전체적으로 유럽 건축양식을 융합한 근대 일본건축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건물은 건축사적 가치와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1994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됐다.

옛 군산세관 건물은 1908년부터 1993년까지 세관 본관으로 사용되다가 2006년 호남 관세전시관으로 바뀌었고, 내·외부 보수와 전시물 확충을 거쳐 다시 관세박물관으로 변신했다.

군산세관은 박물관을 관세행정 홍보 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개관식에서 “호남 관세박물관은 근대역사박물관, 옛 조선은행, 동국사 등 근대역사문화를 잘 간직한 군산에 꼭 필요한 문화자료”라며 “방문객들은 관세청·세관의 역사와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정욱기자 nogusu@

9일까지 남해안 인근서 北 도발 대응 육·해·공 합동 훈련

함정·항공기 실전 배치

국가 중요시설 보호훈련

해군 3함대사령부는 최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6일부터 9일까지 남해상에서 육·공군, 해경과 공

동으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상선의 통제구역 침범 상황을 가정해 흑산도, 여수, 이여도 해상에서 펼쳐진다. 잠수함과 함정 14척, 항공기 8대 등이 참여한다.

해군은 최근 실전 배치된 2500t급 차

기 호위함 광주함(FFG)과 동급 유도탄 호위함인 전북함(FFG), 1500t급 호위함(FF), 조계함(PCC), 유도탄 고속함(PKG), 고속정(PKM) 등 함정 10척을 투입한다.

또 장보고급 잠수함(SS-1200t급)과 대잠초계기(P-3)·대잠헬기(LYNX) 등 항공기 3대도 투입한다.

육군 해상전탐감시대, 공군 전술기, 해경 함정·헬기도 합동으로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차단작전, 사격 훈련, 국가 중요시

설 방호 훈련 등을 한다.

3함대는 긴박해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속에 적 도발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출발 및 소해수로 통과, 대공·대함 사격 등 20개 종목의 훈련을 한다.

영남=문병선기자 moon@

한·미 연합 독수리(FE) 훈련 당시 해상사격 훈련.

해군 제공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키움통장 II’

전남도 내달 2~19일 신규가입자 모집

전남도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마련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II’ 신규 가입자를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II’는 근로능력이 있는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기구가 노

동시장에서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대1로 매칭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월 10만 원을 3년까지 지원한다. 3년을 적립하면 저

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더해 평균 72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 자산을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 가입 조건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기준 182만원이고, 4인 기준 223만 3000원)이고,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다.

올해 ‘희망키움통장 II’는 총 4회에 걸쳐 927가구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번이 마지막 4회째다. 가입을 바라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희망키움통장 II’에 가입해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1402가구로 총 3억8200만 원이 적립돼 있다.

나윤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희망키움통장 II가 생계·의료수급가구 집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하는 저소득가구가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북지역 은행권, 채용설명회 공동 개최

13일 전북대학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은행권이 오는 13일 전북대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주관하는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북은행, 농협은행 전북본부

가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별 채용요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별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면접관으로 한 모의면접,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공공

기관은 이를 기초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게 된다. 이는 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채용

방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 청평면 730㎡ 전원생활적합 1억1500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장성 북하면 백암물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아파트

- 화성동 중흥파크건너편 대지 149㎡ 주택 160㎡ 삼기전용가능 2억3천
- 화성동 주택 화순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 사용 주택 60여평 3억3천 상등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평 124㎡ 일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전세 3억5천 월 1100선 25억5천
- 화성동 다가구 8세대 전세 2억2천 1억5천선 명과 교환 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김점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주거지 294㎡ 법원과 조선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5억3천

급 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지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4천
- 중흥동 모텔 대지 184㎡ 건평 652㎡ 은행 3억9천 수리해0할 천만원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김점 2억5천, 매도 1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리조트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문의. 010-3605-5000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h3>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